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보도

2023.11.14.(화) 15:00

배포

2023.11.14.(화)

담당부서	금융투자검사1국 증권기획조정팀	책임자	국 장	김진석	(02-3145-7010)
		담당자	팀 장	최상두	(02-3145-7012)
	금융투자검사2국 자산운용기획조정팀	책임자	국 장	김형순	(02-3145-7690)
		담당자	팀 장	이현덕	(02-3145-7620)
	금융투자검사3국 검사기획팀	책임자	국 장	장창호	(02-3145-7830)
		담당자	팀 장	박시문	(02-3145-7832)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 개최

I 간담회 개요

- 금융감독원은 '23.11.14.(화)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하였음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1.14.(화) 15:00~16:0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금융투자검사1·2·3국장
 -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자율규제본부장
 - (증권업계)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Ⅱ 주요 논의내용

1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

최근 금융사고 발생추이와 유형을 고려할 때,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사고 건수(금액) : '19년~'22년 (평균) 7.8건(143억원) → '23년 14건(668억원)

-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최근 증권사 주요 금융사고 사례>

구분	회사	사고금액	주요 사고내용
사금융 알선	A증권	187억원	증권사 직원이 다수 고객들에게 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제3자(주가조작 혐의자)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으며 이후 해당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되었음
사문서 위조 등	B증권	111억원	증권사 PB 직원이 11년간 고객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잔고증명서를 발부
고객자금 사적편취	C증권	44억원	증권사 PB 직원이 다수의 고객에게 우리사주 등에 투자한다고 말하고, 본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수령하여 편취
횡령	D증권	19억원	IB 부서 직원이 SPC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5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SPC 자금을 무단 인출

- 또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 행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전수점검을 진행 중인바, 향후 금융사고 인지시 즉시 보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 특히,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인 점을 설명하였음

2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사익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바,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

- 최근 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은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음

3

리스크관리 강화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

- 금년에는 IB부문 뿐만 아니라 리테일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시 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미수거래·신용융자·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

-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자체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서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향후 금융감독원도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음

III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향후에도 업계와 수시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

※ [별첨]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발언자료 1부